

화순군, 13개 읍·면에 대형 국화 조형물·국화 작품 설치

화순 대표 문화관광 유산 국화 조형물로 제작 22종 40점 설치... "전 지역 힐링 공간 조성"

화순군이 국화향연 개최를 위해 재배해 왔던 국화를 활용한 국화 작품을 13개 읍·면에 설치해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 화순 국화향연'을 취소하고, 축제 취소에 따른 대응 계획을 수립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화순군 전체 읍·

면에 대형 국화 조형물을 설치하고 국화 거리로 조성했다. 군은 복숭아, 파프리카, 옥수수 등 읍·면을 대표하는 농산물, 쌍봉사철감선사탕, 핑매 바위, 운주사원형석탑, 공룡 등 화순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유산을 국화 조형물로 제작했다. 13개 읍·면에 설치한 작품은 22종



40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차량 이동이 많은 화순읍 계소리 회전교차로, 화순고인돌교차로, 동복교차로, 춘양교차로 등 7곳에는 작품 국화를 설치했다. 국화를 심은 남산공원과 주요 장소에서



국화 개화기를 맞아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전 지역을 국화 향기 가득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



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가을의 정취를 충분히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화 개화기를 맞아 가

을 정취를 즐기려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는 남산공원의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관람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관람 인원을 하루 최대 1000명으로 제한하고 사전 예약한 관람객만 입장할 수 있다. 관람을 원하는 외지인은 '화순 남산공원 온라인 사전 예약' (<https://cf.hwusun.go.kr>)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화순군민은 신분증만 소지하면 관람 인원과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전남 최초 세계축제협회 피너클어워드 수상

'곡성세계장미축제 홍보디자인물 부문' 동상



지난 23일 개최된 '제14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곡성군이 전남 최초로 홍보디자인물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피너클어워드는 1956년에 설립된 세계축제협회(IFEA World)에서 주관하고 있다. 세계축제협회는 전 세계 5개 대륙 중 50여국의 나라가 회원국으

로 가입돼 있으며 3,000여명의 정회원과 50,000명의 준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단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쟁력 있는 국내 축제를 발굴해 우리나라 축제의 글로벌화를 앞당기는데 일조하고 있다. 곡성군 문화체육과 김복규 과장은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전 직원이 합심해 축제를 준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앞으로도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나주시, 식품·공중위생업 사전상담제 호응 영업 허가 절차·필요 서류·전문지식 등 사전 안내

나주시보건소에서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절차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사전상담제가 초보(신규) 업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사전상담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전문 지식 등을 우선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다. 영업장 건물의 적법여부, 영업장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 창업 필수 정보

와 업종별 위생교육, 보건증 등 영업신고증 발부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초보 업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인·허가 관련 상담 횟수는 2600여건에 달한다. 사전상담제는 나주시보건소 위생민원팀(☎339-2175~2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을 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기동채주본부



김영식 보건소장은 "영업신고에 필요한 정보 습득을 위해 보건소를 여러 번 방문해야 했던 신규 영업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영업 및 창업 고민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업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채주본부

담양군, 담양물 운영·출자 설명회 개최 담빛농업관 1층에 조성...가공품 유통 플랫폼 구축 '총력'



담양군은 26일 담빛농업관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가공식품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물 운영 법인 설립과 출자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가공품 판매 활성화와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담양읍 천변리 소재 담빛농업관 1층에 40여 평의 판매 홍보관인 담양물을 조성했으며 이곳에서는 지역가공품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구축 설명회와 운영 임원진 선출, 판매장 인테리어 등을 완료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이날과 28일로 나뉘어 진행되는 설명회를 통해 법인출자자 모집과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중에 개장할 예정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가공업체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하고 대형매장과 직접 연계한 특판 행사와 각종 식품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규모화를 통한 소득을 높이고자 한다. 담양=박종영기자

"주차걱정 끝" 장성호 주차장 3배 더 넓어져

주말 평균 1만명이 찾는 '관광 핫플레이스' 장성호의 주차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장성호는 지난 2018년 수변길과 출렁다리를 조성하며 관광명소로 급부상했다. 올해에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황금대나무숲길'과 두 번째

출렁다리인 '황금빛출렁다리'를 개통해 더욱 큰 인기를 끌었다. 또 호수 우측에 새롭게 선보인 '숲속길'은 출렁다리와 어우러진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트래킹 코스로 각광받았다. 문제는 주차난이었다. 기존의 제

1주차장 규모가 210면에 불과해, 주말이면 주차 행렬이 인근지역 지방도까지 이어졌다. 교통량도 많아 사고 위험 또한 상존했다. 이에 장성군은 장성호 주차장을 확장하고, 차선 도색 등 기존 주차 공간을 정비했다. 제1주차장을 330면 늘렸으며, 150면 규모의 제2주차장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총 480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